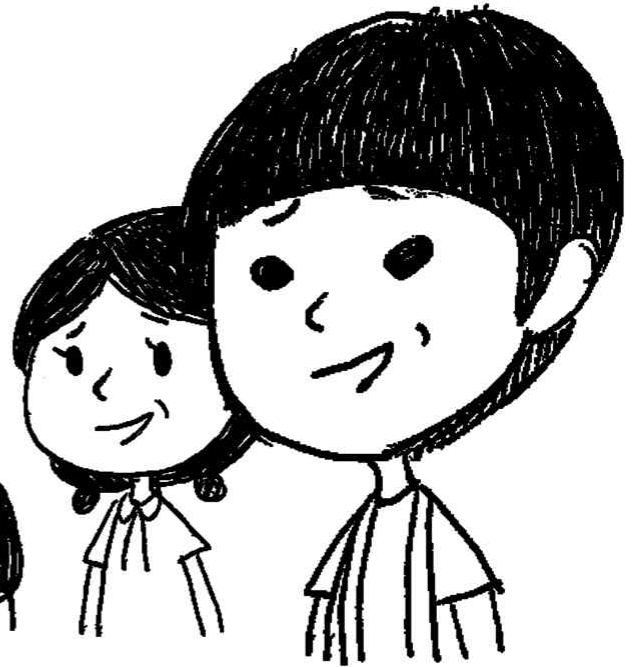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체 [chat]

일시 : 2010년 8월 5일~7일
장소 : 오덕훈련원(경기남양주)



알찬 자료집 읽지 않으면
넌 후회할테야 ㅋㅋㅋㅋ

Chat [챗]

1. 담소를 나누다

2.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수다

2박 3일 재미난 일정소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7:00	오덕 훈련원 GOGO	아침식사 및 씻고 준비하기	Chat Ⅶ [로그아웃] 아침 만들어 먹기 + 헤어지는 시간
8:00			
9:00			
10:00		계곡에서 신나는 물놀이 시간	
11:00		맛있는 점심식사	
12:00			
13:00	참가접수 및 부스설치	쿨쿨낮잠 혹은 자유 시간	모두 버버
14:00	Chat I [로그인] 접속하기, 친구추가		
15:00	Chat II [환경설정] 규칙정하기, 약속하기	Chat V [오락(五樂)하기] 다섯 가지 주제의 재미난 모둠토론	
16:00			
17:00	맛있는 저녁식사	맛있는 저녁식사	
18:00			
19:00	Chat III [대화하기]	Chat VI [대화창 흔들기] 청소년 활동에 대한 끝장토론!	
20:00	모난라디오 스페셜 공개방송과 함께하는 활동나누기		
21:00	Chat IV [잉여번개모임] 신나고 뜨거운 밤을! 잉여!		
22:00			
23:00			
24:00			

두.근.두.근 프로그램 소개!

Chat I 로그인

첫째날 / 14:00~16:00 (2시간)

‘이님은 누구?’ 어색한 우리 어색한 미소를 날리며 ‘챗’방에서 쓸 **대화명을 설정** 해봐요. 대화명을 설정했다면 친구들을 찾아 추가할 차례! 처음 만나 아직은 낯설지만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어색함도 풀어 봐요.

Chat II 환경설정

첫째날 / 16:00~18:00 (2시간)

이제 2박3일 동안 함께할 우리들의 챗[Chat] 환경을 설정할 차례! 기본설정 / 대화체설정 / 이모티콘 설정 / 플래시콘설정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재밌고, 의미있는 챗[Chat]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해봐요!

Chat III 대화하기

첫째날 / 19:30~22:00 (2시간30분)

: 모난라디오 스페셜공개방송 '별이 모나지는 밤에'

‘모난라디오’가 ‘챗’에 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당황하지 말아요. 그냥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단체나 활동에 대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hat IV 잉여번개모임

첫째날 / 22:00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빼염! 우리는 뜨겁고 신나는 밤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잉여’가 되겠다는. 뿔굴거리기부터 달빛산책, 마피아, 좀비게임, 카드게임, 만화책, 공포영화, 다큐영화까지! 잉여!

Chat V 五樂(오락)하기

둘째날 / 15:30~18:00 (2시간30분)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온 우리. *하지만 청소년들끼리만 통하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주제. 그리고 다섯 가지 ‘즐거움’이 있는 허물없는 챗팅! 부담 없이 우리들끼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라는 미리 준비된 다섯 개의 주제가 있으며 만약 다른 청소년 활동가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잊지 말고 제안해주세요~

Chat VI 대화창 흔들기

둘째날 / 19:30~

: 끝장토론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여러분은 이제 ‘100분 토론’에 참여한 시민 논객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4명의 토론자들과, 지금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청소년활동의 뜨거운 ‘핫이슈’들을 솔직하고도 발칙하게 이야기해봅시다! 100분토론보다 더 후끈후끈한 대화창흔들기!

Chat VI 로그아웃

인터넷이 안 되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챗[chat]방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할 시간 흑흑 방별로 직접 만든 아점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보아요. 2박 3일동안 어땠는지 느낌을 나누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해 봐요.



五樂

[오락]

다섯가지 소소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환승센터>

‘활동’이라는 걸 한다. ‘청소년 인권’이라는 걸 말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활동’이 별거인 줄 알았다. 나같은 평민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래서 처음엔 죽어라 했었다. 따라잡고 싶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신촌에서 했던 청소년 노동인권 직접행동.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호를 외쳤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던가? 난 친구 따라서 활동 시작했다. 친구 따라서 회의 가고, 친구 따라서 글도 썼다. 열심히, 열심히. 나도 ‘별 것’을 하고 싶었다. 있어 보이고 싶었다. 나는 10대지만 글도 쓰고,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정말 멋있게만 보였던 활동이 사실은 짜질하고 궁상맞고 더럽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게 스펙은커녕 당장 1년 후의 미래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활동을 하면 세상이 분명 바뀔 거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도 않다. 대체 이 힘들고 정신없고 몸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활동이란 걸 왜 손에서 놔버리지 않는 걸까. 죽어라 한다고 해봤자 기껏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라도 되면 잘 된 거라고 평가하는데. 어차피 다 안 될 텐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활동 왜 해?”라는 질문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늘 있을 회의를 위해 가방을 챙기는 것은, 나에게서 재미있어서다. 주변에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회의하면서 이거할까 저거할까 떠드는 것도 재밌고, 이것저것 해보는 직접행동들도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이끌어온 것은 그 재미였다.

그렇다면 재미로 활동해도 되는 걸까?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오니까 활동하는데 뭐 굳이 이유까지 필요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난 내가 활동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다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이유도 꽤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

활동 왜 해?

두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맛싸>

처음에 활동을 접하게 되었을 땐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오승희(오답승리의 희망)이라는 잡지? 신문도 제목부터 신기했고, 집회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기호0번 청소년후보 활동이나 일제고사반대 등교거부 활동 등…… 이런 활동들에서 하는 주장, 활동 방식(그 주장을 풀어내는 방식) 모두 다 신선하다고 느껴졌다.

흠 그중에서 가장 재밌고 신선한 활동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건…… 휴대폰금지조례 반대하는 플래시몹 이다. 작년 8월 말쯤 휴대폰 금지 조례를 경남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서울과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했던 활동이었다. 해가 진 후 저녁시간에 15명 정도가 만나서 핸드폰을 조명삼아 개사한 노래를 불렀던 활동이었는데, 여러 명이 흩어져 있다가 반짝 모여서 노래 부르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막 광화문광장에서 하고 청계광장으로 옮겨가고…… 경찰들을 농락하는 짜릿함까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밌는? 신선한 활동들이 나를 계속 활동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종의 활력소……?

근데, 점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찢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찢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꼈다. 특히 난 아이디어 같은 거 잘 못내는 스타일이라 엄청 힘들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뭐 막상 끝내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좋은 아이디어나 나름 신선하다고 느낄 활동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난 활동가 대회에서 그리고 이 주제별토론에서 다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밌었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다.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밑줄 짝>

침묵한 채 ‘그 공부’, 침묵하지 않고 ‘이 공부’

우리는 침묵한 채 ‘공부’했다. 수업시간 제 1법칙, 입을 다물 것. 제 2법칙, 눈은 선생 얼굴을 향할 것. (그가 말하길, “내 눈을 바라봐. 네 성적 오르고!”) 제 3법칙, 달리 생각하지 말 것. 그냥 듣고 외울 것. 사회에서 ‘공부’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지,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것의 답습, 지어진 사회구조의 유지, 지랄 맞은 일상이여 영원하라. 원 소리지..... 뭐였더라? 그러니까.

2010년 봄 - ‘그 공부’ 에 대한 단상

어차피 ‘그 공부’는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농어촌 고등학교에서 전교 등수 중위권에 등지를 튼 내 동생은 국영수가 안 된다. 암기과목으로 내신은 그럭저럭 따지만, 모의고사만 봐다하면 시험지가 신세계라 한다. 그 말인 즉슨 정시는 글렀다. 논술교육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다. (농어촌이라니까?) 그녀는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사교육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현재 고2. 일 년 남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도권 대학은 글렀다. 우리 부모에게는 백도 돈도 없다. 잔혹한 얘기지만, 못 간다. 돈가스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 둘이 같이 울었다. 그 날 이후에도 그녀는 시험 때면 여전히 점수에 목을 맨다.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공부’가 (그와 동의어쯤으로 여겨지는 ‘성적’) 사회 과목에서 흔히 떠들어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되물림하는 주요한 사회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잘 사는 놈들만 더 잘 살게 만들어진 더러운 세상”을 욕하지만, 알면서도 이놈의 공부를 더럽게, 못 놓겠다. 진짜 더럽다.

~과거로 타임슬립~ ‘그 공부’ 와 멀어진 사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쳐야 하는 지 알 수 없어져버렸다. 누군가 학교를 ‘산업사회에 내보낼 인력’을 컨베이너 벨트에 실린 상품들처럼 제조하는 공장이라 정의했다. 우리가 성적에 목매고 대학에 목매는 그 과정들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사회의 강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스스로 우리 목을 쥐어주게 될 거라 했다. 선생님 손에, 사장님 손에, 국회의원 손에, 기업의 손에, 우리 목이 달랑달랑. 지금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고 나니 더 이상은 시험기간마다 교과서 요약정리하고, 시험지 채점하며 점수 몇 점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머지 나를 ‘상품’이나 ‘기계 부품’으로 취급할 순 없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까지 내어줄 순 없었다. 니들이 얼마나 잘났든, 니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현실’이든, 그럴 수는 없었다.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완전히는 못 났다. 이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면 어떡해? 나중에 대비해서 일단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말다가, 났다가 다시 붙잡았다가.. 차츰 놓는 날이 많아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중에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심정으로 무시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 그 ‘불안’은 관습이었고 사회가 돌려 채운 족쇄였다.

무시하니까,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화가 났다. 너무 화났다. 그맘때쯤 나를 가장 괴롭힌 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 지 전혀 감이 안 잡힌 다는 거였다. 그냥 백지. 막막했다. 뭘 좋아하는 지도 모르겠고, 뭘 먹고 살아야할 지도 모르겠고, 첫 단추도 안 꺼지는 마당에 미래에 대한 차곡 차곡 준비 같은 거 시작도 못 하겠고. 근데 진로를 정하라네? 장난해? 당신네 인생 아니라 이거지?

내 삶을 누가 다 빼앗아 간 걸까.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내 삶을 챙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 날, 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는 사람이라는 자각마저) 처음부터 ‘박탈’ 되어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를 속였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 바늘구멍 통과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노후대책 보험 들고…… 처음부터 이 길 밖에 없다는 듯 몰아붙여놓고, 그 이면에서는 이 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유지시킨다. 우리는 공부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자기기만 속에서 질서에 편입되길 욕망하고, 나보다 더 공부 못 하고 못 살고 못난 다른 이들을 짓밟은 위에서 결국 이 모든 구조를 유지시킨다. 예전부터 그러 했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도록.

침묵 하지 않는 공부도 세상엔 있다

그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 얘기를 해보자. 세상이 왜 이따구로 만들어졌으며,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등등의 얘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안다는 애들이 좀 잘난 척이 심하더라. 재수 없다. 잘난 척 목적으로 공부 안 하도록 조심 또 조심하자. 음음. 뽀뽀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질서를 이룬 채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여성주의(페미니즘)’도 있고,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일상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지 알려준 청소년 인권 활동도 있다. 공부라면 공부였다. 내 좁은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 배웠다.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멀리하게 됐고,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생각하게 됐다. 어쩔 땐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할 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책 같은 걸 가끔 가다 붙잡고는 한다. 그냥 조금이라도 나를 깨워보려고, 옆구리 쿡 찌르면서 그만 옆어져 자고 일어나라고 하려고, 정신차라자고 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이 공부는 침묵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안에서 끈임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내 안의 시끌시끌함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 아마도 계속 활동을 하지 않을까? ‘침묵하지 않기’에 대한 선택, 그러한 활동을.

네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빠염>

내 인생에서 ‘빠염’. ‘빠염’이 뭐냐고? ‘바이바이’랑 거의 같은 의미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고로 이 글은 내 인생에서 헤어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확히 말하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래서 ‘빠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 활동을 접했을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이 마냥 좋았다. 2007년에 거의 처음으로 집회 같은 것에 참여했는데, 그 때의 신선한 충격과 두근거림이란. 아, 나도 뭔가 이렇게 내 얘기를 소리칠 수 있구나. 내가 그 동안 궁시렁 거리던 것이 그냥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기분. 그 ‘처음의 기억’을 에너지 삼아 아자 아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삶을 선택한 이후, 하루하루의 현실은 꽤나 많은 고민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뉴스나 언론 등에서만 듣던 “너네 같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저런 애들이 다 비행청소년이야” 따위의 말들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들을 때, 확 밀려오는 좌절감이나 무력감 같은 거. 애초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건만 참 거시기하다. 또 그런 거 말고도 뭔가 기획해서 똑똑똑 해보고 싶어도 당장에 부딪히는 재정적 어려움 같은 것도 활동을 하면서 ‘빠염’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 나는 처음 보는 어른도 청소년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반말’을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미성숙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먹히는, 지금 이 사회의 꼬라지를 바꾸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은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위에 적은 저런 것들과의 ‘빠염’이 필요한 것일테고.

근데 나 혼자 ‘빠염’ 한다고 진정 ‘빠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선택한 청소년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활동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를 어떻게 좀 쿡쿡 찌르고 건드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빠염’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뭐... 더 글로 쓰는 건 좀 지루하고 잘 생각도 안 나니까, 같이... 얘기해보자구영. 아하하하

다섯 번째 이야기 <설렘과 망설임>

나는 18살.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딱 어떤 인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현재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행사에 간혹 참가하는 것, 그리고 교내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나도 어느 활동에 정말로 푹덕하고 뛰어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좀 더 알고 싶었고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늘 나에게서는 망설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학을 간다, 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 일단 '나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들어갔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늘 생각했다. 주변의 친구처럼 학교를 많이 빠져 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할 만큼 나는 용기가 없었으며, 매일 매일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갈 그만큼의 기운도 없었다. 또한 일단 학생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선택했다면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부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부모님의 말도 나를 망설이게 했다.

이번에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설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내 생활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 혹시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더욱 컸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졸졸 따라 처음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뭔가 열심히 활동해 온 그들에 비하여 경험이 많이 부족한 나였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가 죽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 몇 번을 참가하고, 2박 3일의 일정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며 지금은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이번 활동가 대회가 앞으로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나처럼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과의 갈등을 심하게 겪거나 하는 등 나보다 더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설렘과 망설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이야기 해 보자



대회창흔들기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뜨거운 끝장토론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이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이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 청소년활동에 대해 “학생이 공부나 하지!”,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비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런 생각들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 논리와 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쉬워졌습니다.
- 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왠지 뒷에 걸려드는 듯한 기분을 갖게 만드는 교묘한 논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논리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논리를 찾아본 다음, 좀 더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만들기 위해 무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토론해봅니다.

● 진행 방식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 네 명의 패널을 모시고 참여 청소년 논객들 사이의 대토론을 벌여봅니다

□ 모시는 이들

-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 청소년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여 청소년 논객들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방학인데도 학생들 많이 모여 있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여하간 오늘 이쪽 캠프 관계자 분께서 저한테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경력만 20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아무리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알 것 다 안다고 이야기해도, 지들이 살아온 세월이 제 학생부장 경력에도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만큼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경험이 많이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말이지요, 제 속이 까맣게 탐니다. 점점 더 서로를 위할 줄 모르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건들거리는 태도로 일관하고...아주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다 뭐다, 들은 것만 많지 솔직히 옛날 애들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미숙합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처럼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친구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애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애들 만나는 보람이 있으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 일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치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만 없으면,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실이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간에 책임도 없고, 규칙을 지키는 일도 없어요. 이런 시점에 체벌 금지다 뭐다 교육청에서 교사들 기죽이기에만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는 법도, 규칙도, 원칙도 없이 난장판이 될 겁니다.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고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 사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저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은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좋은 어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에도 꼭 지도교사가 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독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규정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밖 모임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지도자나 보호자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재정을 마련해서 조건을 갖추어 주면,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지요. 솔직히 청소년들도 독립, 독립 외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지원이 제공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활동가대회도 아름다

운재단 같은 어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 청소년은 좋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고, 좋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뜻을 잘 대변해주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나는 2008년 5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통해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사실 멋모르고 시작했고, 친구들이 재밌는 게 있다 길래 친구 따라 촛불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야간자율학습’을 그렇게 심하게 시키고 땀땀이 돌리는 뻥센 학교는 아니었다. 그래서 하교 이후 쉽게 촛불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지금은 고3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청소년단체도 촛불과 연관이 깊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런 모임이 꾸려졌고, 지금도 그 당시 촛불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활동에서도 참 배운 것이 많다고 느낀다. 교과서에서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좀 더 실감하게 되었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게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시간이나마 활동을 했었던 내가 본 청소년활동판(?)은 사실 조금 위험해 보였다. 인권문제나 학생인권을 주요 주장으로 삼는 청소년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른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돈도 지원 받는 것 같았다. 조중동 같은 일부 보수언론에서 ‘어른단체’들이 청소년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라는 말들이 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은 아닌 것이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더 배워야 하고, 알아갈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시선에서 고루고루 여러 가지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그룹의 특성이란 것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도 아직 뚜렷한 주관 없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휩쓸리기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쪽 시선에만 머물러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청소년 운동은 이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실제로 미성숙하던, 성숙하던,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단체만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이념 또는 정치성이 있는 어른들 단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청소년 운동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의미에서 기본이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청소년 활동, 진짜 청소년들의 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발전해나가야 한다.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청소년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반년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그 활동 때문에 약 2달동안 집에서 쫓겨나 있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는 보수적인 분들 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와서도 아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왔던 것이 마침내 폭발했던 것이다. 나는 공부가 하기 싫었고,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기를 원했다. 도대체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겠던 나는 집을 나와서도 혼자 잘 살 수 있을거라고 믿었었다. 순진하게도 그랬더랬다.

굉장히 찌는 말이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지만, 집 밖에서 살았던 두 달 동안 현실이라는 걸 아주 조금이나마 본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단지 거기까지다.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들. 차비 720원이 없어 회의에 못 간다고 전화했을 때의 비참함. 매일 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차비를 빌려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생활이 되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그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아주 잠깐 느낀 나조차도 이런데.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필수이다. 그것을 위해 대학을 가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이미 학교를 자퇴한 후 몇 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내가 그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든다고 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에는 이미 틀렸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부모님만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소리쳐야 될까.

반년동안 청소년활동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스펙에서 멀어져왔다. 내 친구들이 피동싸게 공부할 때 내가 해왔던 활동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었다. 그 책임을 조금쯤 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활동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희생 위에 쌓여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나는 좋고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자위를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활동 경력이 스펙으로 인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스펙삼아 대학에 간 청소년 활동가들이 성인이 되어서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던가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한 청소년 활동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하지 않을까. 청소년 활동을 한다고 하면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높은 사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서울대생이 말하는 거랑 대학도 못간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위에서 말했듯 활동이 개개인들의 희생이라면 그런 활동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도.

cafe.daum.net/youthm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은
아름다운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충남지부,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